

민주,尹 방미에 “日 퍼주기 외교실패 반면교사삼아야”

“日 외교 반면교사...실용, 국익외교”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사인 말라” “국민 취해 MOU만 자화자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방미를 위해 출국하는 24일 윤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면서 “실패한 퍼주기 외교에서 반면교사 삼으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으라”며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국민 방문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장 우선순위에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 정부 규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있다”고 말했다.

이울러 “도청 의혹을 강력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와야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신뢰 바탕 위에 동맹 가치가 발현되고 두터워질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천명해 순방 전 접화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세계에선 맹목적 믿음이 아닌 정확한 분석과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 역량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익에 최우선한 당당한 외교를 펼친다면 국민 뜻에 따라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은 윤 대통령 기존 외교를 비난하면서 방미 행보에 우려를 보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불안과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다”고 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또 대형 사고를 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에 공식 사인하

는 일이 정말 없길 바란다”며 “말은 멋있지만 미국 군사 분쟁지에 한국이 끌려가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타 입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울러 “잘 모르면 즉석에서 답변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말하라”며 “대일 굴종외교, 퍼주기 외교로 돌아온 건 더 큰 굴종과 청구서 금액이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허울 좋은 국민 방문 형식에 취해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으며,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더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제2의 한일 정상회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그간 청개구리 행보를 보여 와 더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일 외교를 거론하고 “여기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다시 환심 사기 위한 퍼주기만 골몰하면 우리가 입을 피해가 실로 막중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쟁이 날까 두렵다는 얘기가 많다”며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 경제인들의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전쟁위기를 만들어 내선 안 된다”며 “대통령 말한 마디, 외교 하나가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지켜본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미국 방문이 벌써부터 불안하다”며 “이번엔 부디 외교 의전을 꼭 숙지해서 가길 바란다”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전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깝다, 못해낸 것을 해낸다는 식의 유치한 접근을 포기하라”고 비난했다.

또 “전임 정부 지우기에 집착하면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허황된 목표에 집착하게 된다”며 “한미 동맹은 중요하나 이는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고 번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방문 때처럼 다 퍼주지하

고 윤 대통령 혼자 일방적으로 친분을 과시하는 건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외 송갑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란 환대에 취해 미국에 일방적 이익만 안겨주고 있지 않을까, 대가로 실속 없는 MOU만 잔뜩 가져와 자화자찬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군사 동맹, 미중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자국 산업 보호 등 미국이 우선시하는 정책에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미국에 가기도 전에 다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이슬기자

나주시의회,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지난 24일 제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형철 의원 대표발의



나주시의회는 24일 제251회 나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을 철회할 것과, ▲생활 및 농

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영산강을 활용한 중장기 시인 친화적인 용수 확보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지난 3일 정부는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재의 가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자,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수터널 및 용수간선 구조물과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원, 환경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나주=송준표기자

유동수 국회의원, ‘바다이야기 시즌2 막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나서



유동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일신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사행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개선요구사항은

유동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를 일신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을 발의했다.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사행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주된 개선요구사항은

▲감각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분류 기준 ▲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구성 ▲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였다. 이에 유 의원은 ▲ 등급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만들고, 이를 분기별로 공시 ▲ 이 중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시 ▲ 게임물의 사행성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요청권한 부여 ▲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무 부여 ▲ 게임위 위원 중 1/3 이상을 게임산업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